奉寧

봄

| 불기 2567년 통권 제40호 |

차례

02 창 — 봉녕사 제1회 졸업식
04 향성 — 인연因緣 · 묘엄
06 지혜의 숲 — 용서 · 도혜
08 이계위사 — 불교의 지혜로운 경제활동 · 적연
10 뵙고 싶었습니다 —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 · 담현
16 선배님을 찾아서 —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 진감
20 세계의 여성수행자 — 서양 최초의 테라와다 여성 출가자, 아야 케마 · 진우기
24 자성청정 — 계를 수지하고 새겨듣는다는 의미 · 일오
26 기획특집 — 식차마나니수계산림 · 편집실
32 졸업여행기 — 화엄행자들의 구법기求法記 · 효담
38 다르마를 새기다 — 불심을 가슴에 새기는 수행, 사경寫經 · 편집실
42 재가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 『우바새계경』「제1 집회품」· 편집실
44 사랑하는 부처님 — 행복한 불제자 · 일법행
46 경전에서 길을 찾다 —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 혜후
극락세계와 천상세계 · 연지
48 육화당 — 불법 바다에 몸을 담그고 · 선본
4박 5일간의 대적광전 병법 소임 · 능인
50 치문반 이야기
52 슬기로운 강원생활 — 온 우주의 생명을 담은 발우공양 · 편집실
54 우화궁은 지금 — 2023년 봄
56 봉녕 소식
58 사중 행사
59 법회 및 후원 안내
60 법공양 발원문
62 신입생 모집

등록번호 경기 사50043 / **발행일** 불기 2567(2023)년 4월 30일 / **발행인** 진상 / **고문** 원교 / **편집장** 담현 / **편집위원** 진감 · 성도심
발행처 봉녕사 / **주소** 162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우만동 284) / **편집실 전화** (031) 254-3371
종무소 (031) 256-4127 / **이메일** sangwa258@hanmail.net / **편집 · 제작** (주)서경문화 (02) 2272-7003

인연因緣

세주당 묘엄 명사

향내음이 마치 아름다운 소리와 같다고 해서 '향성香聲'이라고 표현한다.
향내음을 맡는 것을 '문향聞香', 즉 '향내음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 QR코드를 찍으면 세주당 묘엄명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계획은 아침에 있고, 일 년 계획은 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근본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연因緣을 잘 지어야 합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는 청법가請法歌의 노랫말처럼, 현재 우리는 전생부터 지어온 모든 인因과 연緣이 모여 만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신이 향상되어 결국에는 범부에서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여인이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돌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던 여인은 부처님을 만나자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서, 한 명의 가족도 죽은 일이 없는 1백 집을 찾아가 집집이 좁쌀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좁쌀을 구하러 온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죽은 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결국 좁쌀을 한 알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다할 날이 반드시 있는데,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기를 바라니 그것이 곧 어리석음입니다. 죽음은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차이일 뿐, 태어나면 언젠간 모두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肉身이 소멸되는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을 때 마음을 정화하여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세세생생 인연을 잘 지어야 선한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의 힘으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인연이 모이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한 자는 선한 인연으로 지옥, 축생 등의 악처惡處에 떨어지지 않고, 세세생생世世生生 삼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락합니다. 경전에서는 원수에게든 친한 이에게든 똑같이, 악惡지식이나 선善지식 모두에게 내가 지은 공덕功德을 회향廻向하라 합니다. 불과 물이 원수가 아니듯이 내 마음에 드는 인연이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를 포용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해서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대자대비大慈大悲한 그 마음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뜻으로 삼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素寧

– 1992년 입춘기도 입재 법문 중에서

용서

도혜 ·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용서란 (1)놓아줌 (2)이미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함이며, 관용, 용납, 섭수 등의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용서는 단지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용서란 글자를 풀어보면 용납할 '용容'자, 용서할 '서恕'자를 쓴다. 용납한다. 어떻게 용납하느냐? '상대의 마음과 같이'이다.

상대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 더구나 여러분의 생일날. 용서할 수 없다.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면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아내 생일을 챙길 여유가 없었고, 또 상사에게 질책을 받아서 퇴근 후 술을 한 잔 마시고 왔다. 그 사정을 이해하면 용서한다, 안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면 오히려 내가 모든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무슨 응어리를 만들겠는가? 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키워나간다면 단지 마음의 평화만 깨질 뿐이다. 만일 내가 상대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미움이 다가왔을 때 미움 안으로 몸을 담그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미움과 걱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좁은 공간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탐, 진, 치의 썩은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 이기심으로 펄펄 끓고 벌겋게 달군 쇠사슬로 여러분을 묶어 놓는다면 어떨까? 어서 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뜨거운 쇠사슬 굴레를 벗어던져야 하지 않을까?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미움이나 또 다른 파괴적인 감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감정을 키워야만 한다. '자비와 친절'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강한 자비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용서는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상의 길이다.

'마음의 채널을 바꿔라.' TV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채널을 돌린다. 우리도 마음의 채널을 바꾸자. 칭찬하는 채널로 긍정적인 채널로 기분 좋은 채널로 너그럽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채널로 우리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휴식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복을 짓는 일에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 복을 지으며 사는 인생이 착하게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오늘도 허리 굽혀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긴다면 당신은 큰 복 하나를 짓는 것이다. 이 세상에 섬김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고 응어리를 풀고, 마음의 녹을 닦고 칭찬하고 모든 것이 연기법緣起法임을 알아 깨어 있는 삶을 살고 마음의 채널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발원하자. 그리하여 마음이 늘 기쁨과 평안에 머물도록 하자. 素寧

불교의 지혜로운 경제활동

적연 ·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 대학원장

불교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부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재화의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화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행하는 데에도 재화가 필요하지만 출가인에게는 경제활동과 직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재가인은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생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생업에 종사할 때도 본인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방법으로 할 것을 가르칩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재산을 취할 때에 정당하고 지혜롭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참여할 때에는 바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소비할 때도 적합하게 사용하되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는 개인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재화는 올바르고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잡아함경』에는 소유와 관리, 분배 등 합리적 소비지출의 윤리 규정으로 '사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의 4분의 1은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4분의 2는 생업을 경영하는 데에 재투자하며, 4분의 1은 저축할 것을 권합니다. 재물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려면 합리적으로 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문화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기부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아함경』에 보면, '재물은 사용하되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고, 누구에게 재물을 써야할지 지혜롭게 가려야 하고, 상대를 속이고 함부로 달라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정하여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개개인에 따라 가치가 차이는 있겠지만, 『증일아함경』에서는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합니다. 불교는 자비와 자리이타의 정신을 가르치지만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재물을 분배하는 순서도 자신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를 남에게 베풀라고 권합니다. 자기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바새계경』에서는 복전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공덕전公德田으로 경전敬田이라고도 하며 불법승 삼보에 대한 봉사를 말합니다. 둘째는 보은전報恩田인데 은전恩田을 뜻하며, 부모나 스승에 대한 봉사입니다. 셋째 빈궁전貧窮田은 비전悲田이라고도 하며, 가난한 자와 병자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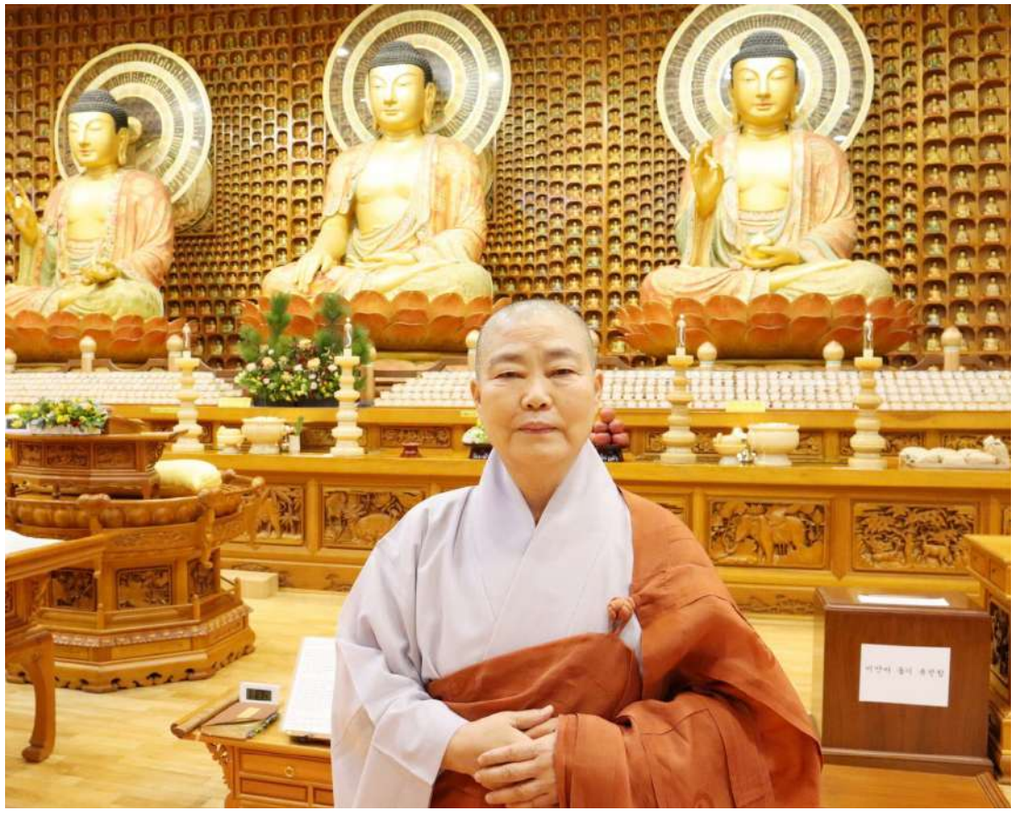
이 밖에도 『불설제덕복전경』에서는 여러 가지 복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원의 다양한 불사에 보시하고, 과수원을 조성하고, 수목을 심으며, 구호품을 제공하고, 선박을 마련하며,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며, 우물을 파는 등의 공덕행입니다. 또한 『장아함경』에는 '삿된 견해를 가진 대상에게 보시하면 깨끗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복전이란 적극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보시를 권한 것은 당시 사회에 필요한 공동의 이익에 참여하는 기본정신으로 자리이타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이익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복전에 대한 공덕행이 됩니다.

『장신경』에는 법답게 얻은 재물로 공덕행을 실천하기에 앞서 세 가지 불(火)을 꺼서 없애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이 세 가지 불을 왜 끊어야 할까요? 만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을 꺼서 없애지 않고 물질적 보시에만 급급한다면, 자기와 남을 모두 해치고 현세와 후세에 오히려 허물이 되어 근심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되, 개인과 가족의 생계에 책임을 다함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자기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공덕을 쌓으며 삼독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자리이타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素寧

● '이계위사 以戒爲師'는 계로써 스승을 삼는다는 뜻이다.



한국불교를 위한 결속, 6천여 비구니들을 이끌다

-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 -

글 · 담현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총본산이다. 본각本覺 스님은 2019년 11월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4년째, 6천여 비구니스님들을 이끌면서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외에도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 샤카디타 한국지부 공동대표, 선우회(봉녕사승가대학 총동문회) 명예회장 등 스님을 수식하는 직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 만큼 그동안 부처님의 제자로, 승가의 일원으로, 한국불교의 비구니로서 걸어온 길은 녹록치 만은 않았다.

늘 당당하고 곧은 비구니 본각 스님의 삶은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이 그저 자유자재했다. 하지만 6천여 비구니와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장으로서, 그 발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 중인 스님의 첫마디는 "그럼에도 우리는 출가사문出家沙門이다."라는 말씀이었다.

학문을 닦든 소임을 살든 그 무엇을 하든, 출가사문의 중심은 수행이어야 합니다. 수행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신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염불이나 참선 등 어떤 수행을 하든, 근본은 매 순간 자신이 수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출가한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줄어들고 승가와 사회의 생활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지금, 회장 스님은 새로운 승가공동체의 모습과 승가가 회복해야 할 부처님의 정신 그리고 '현 시대의 비구니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며 실험하고 모색해왔다.

2021년 4월 30일에 입재한 '전국비구니회 3년 수행결사'를 올해 4월 25일에 회향합니다. 일정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을 세운 여러 스님이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선원장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참선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고민도 나눕니다. 주로 코로나 이후 우리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찰 운영이나 후계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등, 정보도 공유하고 격려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각각의 사찰이나 한국불교 전체에 닥칠 어려움을 잘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청정승가의 모습은 단 하나, 화합이다.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결속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한 방울의 물'임을 강조하고, 함께 모여 진리의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왔다. 작년 10월 18일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비구니 원로회의 명사들과 비구니 종회의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 봉녕사 대중스님들도 동참했다.

회장 소임을 시작하고 보니,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된 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어요. 사람도 세월을 살다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듯, 무정물無情物인 회관 건물도 막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오래된 회관을 혼자 힘이 아닌 전국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잘 고쳤습니다.

법룡사의 건립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우담바라회', '목련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뜻을 모아 주었어요. 전국비구니회의 설립부터 대작불사의 완성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의 전국비구니회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저 모든 인연에 감사할 따름이죠.

지난 2020년 전국비구니회관은 입구 공원화에 이어 대대적인 정비 불사를 감행했다. 여기저기 물이 새는 곳을 수리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공간을 과감하게 바꿈으로써 환경이 쾌적해지자, 사부대중들이 다시 한 번 회장스님의 원력과 안목에 감탄했다.

본각 스님이 주축이 된 제12대 전국비구니회의 주요사업들은 수행결사, 푸르니 청정도량 환경캠페인,

법룡사 어린이법회, 우담바라불교대학, 비구니스님 대상 각종 연수 교육, 의료비 및 장학금 지원,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기도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돕기 등이다.

비구니 승가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세계로 뻗어가는 행보들을 통해 전국비구니회의 존립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수연불변隨緣不變에서 해답을 찾다

우리가 출가했던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른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달라질 미래에 우리 후배스님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엄교학의 '수연불변'이 생각나네요.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에 따르는 수연, 부처님께서 보리좌에 앉아 부동不動하지만 온 우주 법계를 두루 아시는 불변. 부처님께서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수행을 하러 떠난 이유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무상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출가해서 얻으신 그 진리, 다르마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청정하고 진실하고 여여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든 현재든 수행자 본연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더 친절해야 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공손하게 맞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받기보다 드릴 수 있도록, 힘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스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님이 세 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 사십구재를 지내면서 스님 집안은 성철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큰 오빠가 성철 스님께 출가하면서 이어 여섯 남매와 어머니까지 모두 출가한 스님 집안의 이야기는 당시 신문에 날 정도로 워낙 유명했다.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 어머니같은 은사스님을 만났고, 도반스님들과 세상 노래를 부르다 결국 마지막에는 염불이 되어버린다는 옛 추억담은 천생天生 스님의 모습이었다.

강원시절, 열심히 공부할 때의 일이다. 벽에 신문지를 바르는 도배 울력 도중에 '한글 전용'에 관한 신문기사가 눈에 띄었다. 어린 사미니는 문득, '세간에서는 쓰지 않는 한문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절집 생활이 세상과 많이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고심苦心 끝에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 전통 강원 공부 대신 일반 학교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다.

강원에서 잘 지내던 어린 상좌가 대뜸 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은사스님께서 당황하셨을 텐데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 상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백방으로 길을 알아보셨어요. 은사스님은 "승려로서 학교 다니기는 어려우니 공부하는 동안 재가자로서 있어라."라는 말씀과 함께 허락해주셨어요. 끝까지 학교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은사스님의 배려와 은혜 덕분이에요.

그분이 인천 부용암의 육년六年 스님이다. 그 자비심은 어린 상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로 피난민들이 많을 때였다. 어려운 절 살림에도 불구하고 죽을 끓여 많은 피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전쟁고아들을 거두어 키웠다. 1960년대에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상'을 받았을 정도로 어질었던 은사스님은 어린 상좌에게 어머니 이상의 분이었다.

본각 스님은 세상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앞으로 평생 공부하게 될 불교 대신 서양철학을 선택했고, 학교 공부를 마친 뒤인 1976년 가을, 스물여섯 살 무렵 다시 머리를 깎았다. 온전히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발심發心한 출가였다.

화엄華嚴은 온갖 잡꽃이다

못 다한 강원공부를 봉녕사에서 다 마치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도쿄의 릿쇼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따고, 고마자와대학원에서 화엄불교학 박사학위까지 마쳤다. 그렇게 재가자로나 출가자로나 부족함 없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1991년부터 26년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교학과 교수를 지냈다.

오랜 세월 『화엄경華嚴經』을 연구하고 강의한 본각 스님을 학계에서는 '화엄의 대가'라고 칭한다.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방대한 양의 『화엄경』을 선택한 스님의 남다른 안목은 화엄의 세계와 현실을 과연 어떻게 원융하게 바라볼까?

화엄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탐사카'인데 '잡화雜花'라는 뜻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살도菩薩道예요. 어떻게 하면 법계에서 보현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가, 핵심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정도正道, 올바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느 하나의 가치에 치우친 것은 단견이고 하나의 상相일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조화롭게 소통하고 서로 어루만지며, 온갖 잡스러운 것을 물리치지 않고 맑고 깨끗함으로 승화시키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꽃' 입니다.

저는 후배스님들에게 한국불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가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부처님 당시처럼 승가공동체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수행결사의 그 뜻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스님들이 불

변의 수행자 자리를 잘 지키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맞게 지혜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불교여성들의 참여,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앞두고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세계여성불교연합회)'은 불교 여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다. 2년에 한 번씩 여러 나라를 돌아가며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 제8차 대회를 주최했다. 당시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 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분이 바로 본각 스님이다.

그리고 19년 만인 올해 제18차 대회가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년 6월 23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 대회가 오랜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세계 곳곳의 여성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역량과 비전으로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2023년, 스님에게는 몹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다. 지난 4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이끌어 온 자리에서 스님이 세웠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염원한 것들이 차츰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후배로서 그리고 비구니 승가의 예비 일원으로 마음을 함께 모으며, 후배들에게 전한 스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본다. 兼寧

쉼

無定 고정됨이 없음

二邊俱不住 양 극단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고
三際絶因緣 과거·현재·미래의 인연도 끊어버렸네.
若信這箇物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胸襟蓋碧天 마음이 푸른 하늘을 다 덮으리라.

-태고화상어록-

마음공부는 안개에 옷 젖듯이

-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

글 · 진감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향하당으로 향하는 길. 아득한 졸업 연도를 체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배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제6기)을 찾아뵈었다. 환하게 웃으시며 차부터 마시자는 스님의 따뜻한 말씀에 몸과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었다.

대중의 일을 살피고, 절의 대소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임자로서 그 뒤에 숨은 스님의 노고와 원력을 가히 가늠할 수 없다. 묘엄 큰스님이 자리하셨던 봉녕사와 지금 그 빈자리의 무게를 짊어진 스님에게 현재의 주지 소임은 어떤 의미일까?

"내 앞에 온 일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은사스님이 일구어 놓은 도량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마음입니다. 석좌교수스님, 율주스님 다 자리해 계시고, 소임자스님들과 대중스님들, 또 봉녕사 외호 신장이신 봉녕사 지킴이 신도님들의 봉사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겁니다. 큰스님 안 계신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이곳 봉녕사에 왔다. 출가한 부친스님의 인연이다. 해인사 성철 큰스님 문하로 출가한 부친께서 십 년 만에 연락을 하여 출가를 권유하셨다. 부친은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던 스님에게 사람 몸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을 치료하는 출가자가 되라는 인상적인 말씀을 남기셨다.

그렇게 출가했을 당시 은사스님이 너무 어려워 당신을 찾지 않는 게 제일 편안했다는 스님. 큰스님은 글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재사가 있는 날은 손수 밤을 치시며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출가자는 어떤 인생관과 우주관을 가져야 하는지,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글을 배우면서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는지 큰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출가자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었다.

원願을 세우다

"강원을 마치고 수덕사 견성암에 첫 철을 지내러 갔는데 너무 환희심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나를 출가시켜준 부친스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우리 은사스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편지까지 썼습

니다. 당시 큰 절 수덕사에 조실 혜암 노스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찾아뵈었더니 '이 공부를 하려면 금생에 안 난 셈 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나는 이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한 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원을 세우면 때로는 급한 마음도 든다. 이생에 공부를 다 못 마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스님은 웃으시며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의 한 구절을 말씀해 주셨다.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발원문의 모든 구절이 좋지만, 특히 이 구절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고 하시며 이생에 수행을 다 못 이루면 내생에, 내생에 다 못 이루면 다음 생에 하면 된다는 명쾌한 답을 주셨다.

"물론 어떤 때는 급한 마음이 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파서 학교에서도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몸을 혹사하면 그 대가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한꺼번에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노력한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개 속을 지나가면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젖는 것과 콩나물에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수행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업의 익숙함을 바꿔 나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면 됩니다."

50년 출가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길

스님은 지금까지의 출가 생활에 대해 한 번도 의심이나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큰스님 가신 길 그대로 공부는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공으로 출가자의 승가 생활 또한 '내려놓음' 하나로 정의하신다.

"승가 생활에서 수행하려는 욕심 외에 다른 욕심은 어지간하면 안 낼 수 있지만, 성냄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거스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으면 누구도 시비할 사람이 없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과 어울리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승가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염불이든 화두든 다른 쪽으로 돌려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고이지 않아도 콩나물이 크듯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님은 수행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학인스님들이 모두 이 마음공부 하는 이치를 명심해서 실천이 중요함을 꼭 알았으면 하신다. 당신이 걸어온 세월에서 얻어진 지혜이자,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다. 업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한 가지를 해도 실천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부탁이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스님은 당신이 할 역할을 말씀하셨다.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시점에 적은 인원이라도 스님들을 튼튼하고 자신감 있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다. 탈종교화, 정보화, 개인주의 시대라는 급변하는 흐름 속에 당신 세대의 문화나 수행환경을 고집하고 싶지 않다. 대신 이러한 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새로운 세대의 출가자들을 뒷받침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수행과 포교에 자신감 있게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가까이하라 하신 이유는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선한 법이 나에게도 물들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가보는 길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그렇기에 길을 먼저 가본 선각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함께 가는 도반이 있다면 큰 힘이 된다. 일생에 하나의 원을 세우고, 그 원을 향해 걸어온 길과 나아갈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진정한 선지식이자 좋은 도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발자국이 되기를 바래본다. 素寧

유엔에서 연설한 최초의 불자

서양 최초의 테라와다 여성 출가자, **아야 케마**

진우기 · 로터스불교영어연구원 원장

"수행의 길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 버려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사랑을 주는 것이다."

불교계나 비불교계를 떠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야 케마Ayya Khema(1923~1997)스님처럼 한 생 동안 다양한 삶을 집약적으로 산 사람이 있을까? 본명이 일제 로젠탈Ilse Rosenthal인 스님은 1923년 부유한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인 난민, 주부, 어머니, 세계 여행자, 농부 등의 다양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 비로소 불교를 알게 되어 특유의 단호한 성격답게 불교에만 전념하다가 1979년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테라와다(상좌부불교)로 출가했다. 테라와다의 첫 서양 여성 출가자인 아야 케마가 탄생한 것이다. 케마 스님은 그때부터 불교계 여성 수행자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산다.

이 글은 출가 후보다 출가 전, 즉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성 '일제 로젠탈'의 삶에 좀 더 비중을 두려 한다. 아야 케마 스님이 늦깎이이기도 하지만, 강인하고 도전적인 출가 전의 삶이 출가 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단호하게 비구니들의 수행을 돕고 여성 불자들의 권리를 찾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뒤흔든 전쟁과 나치의 공포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녀는 겨우 열 살에 친척 대부분이 나치에게 살해당하는 악몽을 겪는다.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200명의 소년, 소녀들과 함께 마지막 어린이 피난선을 타고 독일을 떠난다. 영국에 도착한 소녀는 스코틀랜드의 유대인 친척 집에서 하녀로 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얼마 뒤 피신한 부모와 만나기 위해 일본 화물선을 타고 중국 상하이로 향했다. 망망대해에서 연합군과 반연합군 양측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아 마침내 상하이에서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중국을 점령한 일본군에게 붙잡혀 온 가족이 집단수용소에 갇혔고, 아버지는 병에 걸려 비참하게 사망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나온 스물두 살의 로젠탈은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열일곱 살 연상의 첫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

"삶의 길은 알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거드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알아보았다. 그와의 만남으로써 깊은 용기를 얻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마주하는 도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첫 남편을 떠나 한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거드와 재혼한 로젠탈은 가족과 함께 남미 대륙을 차로 두루 여행하고, 아마존 우림을 유랑했다. 그리고 남편이 파키스탄에서 댐 공사를 하게 되자 그를 따라 파키스탄으로 갔다. 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랜드로버를 타고 파키스탄에서 런던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다.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만 1960년대에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다시 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간 로젠탈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힌두교의 명상을 배웠다. 생전 처음 접해본 수행이었다.

이런 수많은 외적인 모험의 저변에서 로젠탈은 내적인 모험을 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호주에 정착하게 된 로젠탈은 농장을 운영하고 말을 기르며 지내던 중, 1973년 태국스님 프라 칸티팔로Phra Khantipalo를 만나 불교명상을 배웠다. 나이 50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실천적인 깨달음의 길을 발견한 것이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다섯 가지 장애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희열을 느꼈다. 3년 후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자는 칸티팔로 스님의 권유에 기꺼이 합류한 로젠탈은 재가불자로서 불교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다. 1978년 호주 다룩국립공원에 서양인들을 위한 수행센터 '왓붓다담마Wat Buddha Dhamma'를 세우고 칸티팔로 스님을 주지로 추대했다. 호주 땅에 세워진 최초의 삼림승가 사원이다.

테라와다의 첫 서양 여성 출가자 아야 케마

로젠탈은 56세가 되던 1979년, 마침내 출가를 결심했다. 스리랑카에서 사미니계를 받고 니안포니카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출가한 것이 일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스님은 사미니계를 받고 난 다음 해탈감과 안도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예뻐질 필요도, 매력적일 필요도,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부자가 될 필요도 없다. 다만 가사를 걸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가사를 입은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좋은 일이다.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될 게 없다."

테라와다에서는 누구도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스님은 1987년 딸이 살고 있는 로스엔젤레스에 가서, 중국 사찰인 시라이템플Hsi Lai Temple(서래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그렇게 테라와다에서 거의 천 년 만에 배출한 첫 비구니가 되면서 '아야 케마'라는 법명을 얻었다. 스리랑카 팔리어로 '아야'는 '고귀한 여성', '케마'는 '안전하고 안심되는'이라는 뜻이다. 이후 서양 출신의 남방불교 비구니스님 법명 앞에는 '아야'라는 존칭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케마 스님은 다른 스리랑카 여성들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스리랑카와 테라와다의 여성 출가자들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테라와다 비구니계를 복원하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아직 비구승들의 승인은 받지 못하고 있다.

1989년 독일에 붓다하우스Buddha-haus를 설립해서 원장이 되었으며, 이어 1997년에 뮌헨에 독일 최초의 삼림승가인 메타비하라Metta Vihara를 세움으로써 독일어로 비구계를 집전하여 최초의 스님을 배출했다.

세계 여성불교 단체 '샤카디타' 결성

아야 케마 스님은 많은 비구니 제자를 키우는 한편, 여성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여성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19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조직하여 개최했다. 달라이라마가 기조연설을 한 이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여성 불교 단체 '샤카디타Sakyadhita(붓다의 딸들)'가 탄생했다.

그해 5월에는 불교계 및 비구니 최초로 유엔에 초청되어 불교와 세계 평화에 대해 연설했다. 또한 같은 해에 스리랑카 '비구섬' 바로 옆에 '파라푸두와 비구니섬(Parappuduwa Nuns' Island)'을 설립해서 서양 여성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1983년 스리랑카에서 만난 스승 마타라 스리나나라마Matara Sri Ñānarāma는 케마 스님에게 자나jhana 명상을 가르쳐보라고 영감을 주었다. 여덟단계의 선정으로 구성된 자나명상은 붓다가 가르친 올곧은 수행법이지만 현대의 서양인 테라와다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명상이었다. 이 수행을 가르치던 때의 아야 스님을 기억하는 한 참가자는 스님이 눈을 감은 명상상태에서 얼굴을 드는 순간, 달콤한 황홀경에 잠긴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케마 스님은 1983년부터 앓았던 유방암이 악화되어 1993년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하고 5주간 입원한 채로 회복 중이던 스님은 거의 죽을 뻔한 순간에 임사체험을 했다. 그 체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틀 동안 에너지가 발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몸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생명 에너지를 잃는 것은 실제로 매우 유쾌한 경험이다. 자기주장을 할 에너지가 없어지므로 자기주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저항감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행行은 극히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고, 죽음의 상태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나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의사들이 개입함으로써 나는 소생했다."

수술한 다음해(1994)의 '24일 집중수행'과 1996년 '7일 집중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몸은 너무 약해졌다. 전처럼 수행자들을 직접 면담할 수 없게 되어 두 제자에게 가르침과 면담을 나누어 맡겼다.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이 브래싱턴Leigh Brasington은 임종 3주 전에 독일로 가서 케마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고, 죽음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내 몸이 이제 바닥이 났고 이젠 가야지.' 하는 느낌이었다. 아야 스님과 레이는 오로지 법에 관한 대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한다.

케마 스님은 또한 '메타metta'에 대해 "서양에서 'loving-kindness(사랑 어린 친절)'라고 번역하지만 'unconditional love(조건 없는 사랑)'라고 해석하는 것이 붓다의 본뜻에 적합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스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사랑, 필로스(형제애), 에로스(로맨스 사랑), 아가페(영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메타는 아가페와 같다는 것이다.

"전법자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사회적 인정을 구하려 하면 해탈로 이끌어야 할 다르마는 그 장엄함과 광휘를 잃게 된다. 사회의 목적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임에 반해 해탈의 길은 놓아버리는 것이며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갈망에 영합한 희석된 불교는 부분적 진리만을 담고 있는 심리극,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심리극이 되기 쉽다."라고 경고했다.

쉽고 아름다운 말과 문체로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서는 아야 케마 스님은 영어와 독일어로 25종의 책을 썼고, 이 가운데 일부는 7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자서전 『내 삶을 드리리(I Give You My Life)』가 있고, 특히 『아무도 아니고, 어디에도 가지 않는(Being Nobody, Going Nowhere)』은 크리스마스 험프리상을 받았다.

세상을 뜰 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내 삶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한 케마 스님에게 수행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수행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온몸과 온 마음일 뿐이다.
조금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자신일 뿐이다."

秉寧

* 사진 출처: mygodpictures.com / buddha-haus

계를 수지하고 새겨듣는다는 의미

일오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올해는 윤2월을 맞이하여 사찰마다 여러 가지 특별법회를 거행한다. 봉녕사에서는 『화엄경華嚴經』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49일간 함께 독송하고, 마지막 날에는 보살계菩薩戒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보살계는 구족계, 식차마나니계, 사미·사미니계와 달리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대승계大乘戒를 말한다.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살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국왕, 왕자, 백관, 재상, 비구, 비구니, 18범천, 육욕천자, 서민, 황문, 음남, 음녀, 노비, 8부귀신, 금강신, 축생, 변화인에 이르기까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범망경梵網經』 「보살계본」에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여, 정수리에 받들어 이고 계戒를 수지受持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수지'가 무슨 의미일까? 수지는 보살계 외에도 많은 다라니와 기도에 앞서 나오는 '개경게開經偈'의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라는 구절의 '수지'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다.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는 이 수지를 세 가지 뜻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얻는 원천으로 따졌을 때 타인에게서 얻는 것을 '수', 스스로 청정한 뜻을 내어 얻으면 '지'라고 설명한다. 둘째는 시기적으로 따져서 처음 얻을 때를 '수', 받고 나서부터 성불할 때까지 그 기간 지속하는 것을 '지'라고 말한다. 셋째는 계법을 수행하는 것을 '수', 문구를 억념憶念하는 것을 '지'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를 어떻게 수지하는 것이 좋을까?

'수지'를 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청정한 마음을 내어 계를 받는 것이다. 계를 천 번 만 번 주어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없다면 갖가지 경계 앞에서 흐지부지 무너져 계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곤란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지키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야말로 계체戒體를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계를 받고 성불할 때까지 계법을 수행하고 억념하려면 우선 계의 내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비구·비구니·식차마나니·사미·사미니·우바새·우바이 등 각각 본인이 받은 계목을 낱낱이 외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불할 때까지 계본을 수시로 읽고 외우면서 문구를 억념해야 한다. '대승참법'에는 하루 여섯 차례 계를 읽고 외우라고 권하고 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은 하루 여섯 차례 외우는 것을 매일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보름에 한 번, 포살布薩에 동참하면 가장 좋다. 그러지 못한다면 스스로 마음을 내어 혼자서라도 보름에 한 번은 계본을 읽어 억념해야 한다. 계목에 익숙해져야 비로소 무지로 인한 실수나 범계梵戒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망경』에 '계를 수지하라.'는 문장 뒤에 '이 계를 수지하고 모든 중생에게 전하라. 내가 외우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어진다. 다른 이에게 계를 전하려면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새겨듣는 것일까?

원효 스님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서 잘 새겨듣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산란함 없이 듣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마음 없이 듣는 것이며, 셋째는 더러움을 여의고 듣는 것이다. 산란함, 경만輕慢함, 더러움은 각각 뒤집어 놓은 그릇, 구멍 난 그릇, 더러운 그릇에 비유된다. 산란함은 뒤집어 놓은 그릇과 같아서 비가 내려도 빗물을 받을 수 없고, 경만함은 구멍 난 그릇과 같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릇에 담아 둘 수가 없다. 더러운 그릇은 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산란, 경만, 더러움이 없는 마음가짐은 비단 보살계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삼귀의三歸依, 오계五戒를 받을 때, 법문을 들을 때에도 다 적용된다. 부처님의 계법을 수지한 모든 분들이 잘 새겨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수지·독송함으로써, 신업과 구업을 잘 가꾸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발원한다. 素寧

계의 향기가 널리 퍼지듯
식차마나니수계산림

1995년 범어사에서 처음 봉행했던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은 2010년 제18회 수계산림부터 봉녕사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봉행한 이후, 올해 2023년 제31회를 맞이하며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을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근대 대표적인 비구니 율사인 세주당 묘엄 명사는 1999년 6월 21일 봉녕사에 금강율원(현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을 개원하고, 2009년에는 비구니 도량 최초로 금강계단을 설립했다.

금강율원은 한국 최초의 비구니 율원으로, 비구니 스스로 비구니 율장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단일계단의 여법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수계자들의 예법과 습의를 맡고 있다. 이는 비구니 율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신 묘엄 큰스님의 원력과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출가오중出家五衆'(비구, 비구니, 사미, 식차마나, 사미니) 가운데 하나인 '식차마나式叉摩那'는 '정학녀正學女' 혹은 '학계니學戒尼'라고도 하는데, 2년 동안 계율을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이세학계二歲學戒'라고도 부른다.

예비 승려인 사미와 사미니는 구족계를 수지해야 비구·비구니가 되어 정식 승려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한국불교 계단戒壇에서는 구족계를 받으려면 4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미니는 그 4년의 과정 중에서 2년의 과정이 끝나면 근본사계根本四戒와 육법六法을 수지하고 292가지 행법을 익히며 식차마나로서 2년간 정진해야 한다. 그래야 비구니 대계(348계)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식차마나의 기간이 2년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여성출가자의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번뇌가 많은 이가 점차로 계를 익혀가는 과정을 2년 정도로 본 것이다. 신심이 견고하지 않은 사미니가 적은 부분에서부터 배우며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면 다음에 식차마나의 학처를 배우게 하고, 식차마나가 많은 부분의 배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해서 구족계를 받아들이게 했다.

근본사계根本四戒
1. 음행하지 말라
2. 도둑질하지 말라
3. 살생하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육법六法
1. 불순한 마음으로 남자와 몸을 맞대지 말라
2. 남의 금전을 훔치지 말라
3. 축생의 목숨을 함부로 끊지 말라
4.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5.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6. 술을 마시지 말라

2010년 제18회 수계산림 때 회향사하시는 묘엄 큰스님

갈마 (2011년 제19회 수계산림)

사미니들은 각처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3학년이 된 그해 봄, 4월이 되면 봉녕사에 모여 식차마나 수계를 받는다. 식차마나로서 비구니계를 미리 배우고 육법六法을 수행하는 것은 청정범행을 닦는 도道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율장의 육법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불음행不淫行과 불비시식不非時食이다. 무엇보다 음욕과 식욕를 절제하고 끝내 끊어내어야 욕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여성출가자를 처음 받아들일 때 구족계 대신 제시했던 '팔경법八敬法'에 의하면 이세학계를 마친 식차마나는 이부승가(비구10사와 비구니10사)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2년 범어사 대성암에서 이부승二部僧수계제도가 복원되고부터 식차마나 수계식도 봉행하고 있다.

1986년 비구니구족계 수계산림 때 갈마위원과 니갈마아사리를 역임하신 묘엄 큰스님 (가운데)

1986년 제7회 구족계 수계산림 (범어사 대성암)

연비 (2011년 제19회 수계산림)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삼사칠증사 스님들 (2023년 제31회 수계산림)

봉암사 유일한 수계자 묘엄

1949년 음력 정월, 당시 열여덟 살의 묘엄 스님은 자운 율사로부터 식차마나계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봉암사로 향했다. 당시 봉암사에서는 청담 스님, 성철 스님, 자운 스님 등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일깨우기 위해 결사 중이었는데, 그 대중이 모인 가운데 묘엄 스님이 자운율사로부터 식차마나계를 받았다. 당시 식차마나 수계의식은 오랫동안 맥이 끊겨 있었다. 율사인 자운 스님이 율장을 연구한 끝에 묘엄 스님에게 처음으로 수계한 것이다.

> *"묘엄아, 내가 알기로는 옛날 옛적에는 몰라도, 묘엄이 니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식차마나계를 받는 것이다. 첫 번째란 말이다. 그러니 중노릇 제대로 잘해야 한다."*
>
> – 윤청광 『회색고무신』 중에서

이부승 수계의 복원과 식차마나의 등장

『일본서기』에는 이미 6세기 때 일본 여승이 동료들과 백제로 건너와 이부승에 의해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한국불교의 경우 백제시대에 이부승 수계제도가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그 명맥을 찾지 못하다가 1982년에 비로소 복원되었다.

율장에는 "사미니와 식차마나는 반드시 비구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대표적인 율사 자운 스님이 묘엄 스님에게 계맥을 전승하는 한편, 비구니 이부승구족계 수계제도 부활을 위한 '비구니 위원회'를 이끌라고 당부한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다. 자운 스님은 또한 직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비구니 이부승구족계 수계제도 부활을 청원했으니, 이 얼마나 경행慶幸한 일인가?

식차마나 수계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

기록에 따르면,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 건국된 조선이 유교儒敎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불교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당시 조선의 비구니 법맥이 거의 끊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어 36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육식帶妻肉食을 일삼는 등 청정 독신 수행승의 전통마저 핍박받았다.

광복 이후, 또다시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아픈 역사로 인해 소중한 불교 유산마저 소실하게 되었다. 당대 큰스님들께서는 한국불교 승풍의 타락을 깊이 걱정하며 불교 전통을 회복하는 데 헌신했다. 그 중 자운 스님은 계율로써 불법의 수레바퀴를 영원히 돌리겠다는 서원으로 일생을 율장 교육에 힘쓰셨다. 그 원력 가운데 식차마나 수계의 복원이 있었다. 이러한 자운 스님의 원력과 후원에 힘을 얻은 비구니들은 '비구니위원회'를 조직하고, 서울의 진관사에서 제1회 본법니계단계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비구니 삼사칠증三師七證을 선출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부산 범어사 대성암에서 이부승에 의한 여법여율如法如律한 수계제도가 실행되었던 것이다.

한국 비구니 승단의 새로운 역사

부처님의 율장에 따르면, 사미니와 식차마나는 비구니의 지도 아래 여법하게 사미니십계沙彌尼十戒와 식차육법式叉六法 등을 수계하고 위의법威儀法과 행법行法 등 법도를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구니 삼사칠증사 스님을 모두 모시고 봉녕사 금강계단에서 거행한 2023년 제31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은 비구니계의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난 4월 4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4월 7일 수계식과 회향식까지, 3박 4일의 수계교육에 동참한 수계자들은 총 29명이었다. 이들은 예비 비구니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사계와 육법, 292가지 행법 등을 배우고 익히며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제31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수계산림 회향식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라."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수계자들에게 수계첩을 전했다. 수계자들 모두 이 계 받음을 초석으로 해서 한없는 선근공덕을 지어 속히 성불하기를 기원한다.

我今佛前受禁戒 十方諸佛作證明 從今已後至正覺 萬死身命終不犯
내 이제 부처님 전에 금계를 수지하니 시방제불 모든 부처님이시여 증명하소서.
오늘 이후 정각을 얻을 때까지 만 번 죽어 목숨이 다한다 해도 결코 계를 범하지 않으리다.

잘 지키겠습니다!
수계자의 진실한 다짐

제31회 식차마나니수계산림 기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하고 환희로웠습니다. 이번 수계산림의 수계자로 동참하여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수계산림 기간에 식차마나 근본4계와 육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제31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은 비구니 삼사칠증사 스님들을 모두 모시고 수계식을 거행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비구니로서 갖춰야할 법도를 더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 3학년을 포함한 29명의 수계자들은 한국 비구니 승가의 거룩함을 영광스럽게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봉녕사 학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계를 잘 받고 오라시던 어른스님의 말씀이 3박4일 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4월 4일 수계산림 첫날, 묵언 속에 번호표를 달고 소지품 검사도 하니 새삼 행자 수계교육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함께 사미니계를 받았던 도반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상강례, 108예참문 의식을 행하고, 발우공양 작법과 게송 또한 따로 습의하지 않고도 익숙하게 행하는 대중의 모습은 번잡하지 않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대중의 힘이구나.' 대중 속에서 본분대로 배우고 익혀야 할 학인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른스님의 간곡한 말씀이 제 눈과 마음에 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갈마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모든 시간이 그동안 각자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운 2년의 시간을 확인하고 검증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도 더욱 신심을 내어 다른 마음 없이 일심으로 집중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어른스님과 교수사스님들께 법과 계율과 위의 등 모든 바른 법도를 배우고 익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애도비구니경』과 『식차마나계본』 강의는 예비 비구니로서 계율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율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이 무수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또 과거의 습기를 버리지 못한 제가 장차 비구니로서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이 자연스럽게도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계자들에게 격려와 자비를 베풀어주셨던 어른스님의 감로법문은 저희들의 신심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위해 힘써 오신 옛 큰스님과 그리고 현재 힘쓰고 계신 많은 어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게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봉녕사 어른스님과 대중스님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봉녕사 도량과 후원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힘써주신 신도임원들과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계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계 받을 수계자들은 봉녕사의 금강계단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어른스님들의 애쓰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의 아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 비구니 승가가 건재하므로 현재 우리가 한국 비구니로서 출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출가한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처럼 법과 계율을 의지해서 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마음에 부동한 힘을 얻길 바랍니다. 奉寧

대방광불 화엄행자들의 구법기求法記

글 · 효담(제49회 졸업생)

우리 화엄반 여덟 행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 어른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걸음을 재촉해서 버스에 올라탔다. 가을 새벽의 상쾌한 바람을 등지고 봉녕사를 떠나 도착한 곳은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붉고 노란색 단풍이 빚어내는 도솔암의 가을 풍경에 화엄 행자들의 마음이 더욱 들썩였다.

선운사 도솔암의 마애불과 지장보살

도솔암은 기암절벽의 마애미륵불과 내원궁의 지장불이 함께하는 보기 드문, 미륵과 지장의 기도 도량이다. 먼저 서쪽의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이 우리를 압도했다. 거대한 바위를 손가락으로 파서 불상을 새겼다는 전설의 이 마애불은 보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게 했다. 우리는 잠시 마애불상 앞에서 참선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즈넉하고 잔잔한 가을 암자의 청량한 기운을 맘껏 받아들였다.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기암절벽과 맑고 깊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내원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은 우아한 인상과 부드러운 어깨선, 두건을 쓴 모습 등이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불상의 형식임을 짐작케 했다.

선운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사적기에 따르면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 창건 당시, 89개 암자에서 3천여 명의 승려가 수도하는 국내 제일의 대찰이었다고 한다. 선운사 경내 5천 평의 동백나무 숲에는 3천여 그루의 질푸른 동백나무가 선운사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광주 무각사

현대적인 절 광주 무각사는 700평의 건물 규모로 김종로 작가의 스테인드글라스 '수월관음도', 광주 원로 서양화가 황영성 작가의 '반야심경'과 '천수천안도' 등이 눈길을 끄는 도심의 사찰이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도량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주지 청학 스님의 고민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청학 스님은 『금강경金剛經』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지 독송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200억 불사를 이룬 가피담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금강경』을 전해주셨다.

"『금강경』을 평생 매일 수지 독송해야 해요. 송광사 중衆인 내가 우연히 보조지눌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담겨 있는 「정혜결사문」을 보았는데, '중노릇을 잘한다는 건 예불과 독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친절하고 간곡하게 다섯 번이나 강조하셨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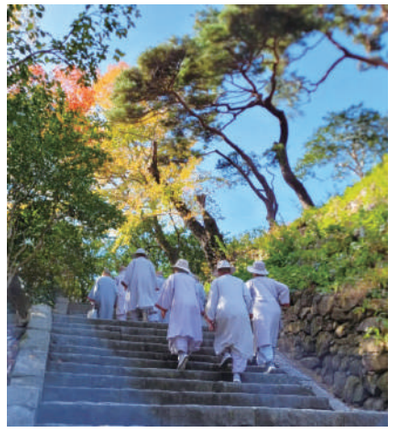
우리는 공양을 마치고 주지스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무각사 법당에서 『금강경』을 함께 독송했다. 이날의 귀한 인연과 법연에 감사하면서 발길을 승보사찰 송광사로 향했다.

승보사찰 송광사

송광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엄 행자들은 유난히 붉게 타오르는 단풍과 남다른 사찰 풍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승보사찰인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 선사 체징(804~880) 스님이 송광산에 작은 암자 '길상사'를 창건한 것이 시초였다. 고려 신종(재위 1197~1204) 때, 조계종의 창시자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수선사'로 이름을 고치고 정혜결사와 함께 그 뜻을 전했다.

송광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국사전을 비롯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 존자, 아난 존자 등 1,250인의 제자를 모신 승보전과 지장전 등 전국에서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절로 유명하다. 국사전에는 지눌 스님을 비롯해서 이 절에서 배출된 16국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예불시간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심장을 울리자, 삼보에 대한 신심



과 승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새삼 느껴졌다. 역시 승보종찰의 기세가 느껴지는 큰 가람이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방안에 놓여 있는 소(牛)의 조각상을 가리키며 목우 가풍을 이어 소를 키운다는 말씀으로 긴장한 우리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셨다.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많은 세계들을 한 공간에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중첩시키면 이것이 곧 환幻이며 걸림이 없는 화엄세계죠. 요즘의 '메타버스'는 서구의 말이고 불교 용어로 '마하버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수많은 영상이 무수한 공간에 동시다발로 방송되어도 서로 걸림도 없이 텅 빈 상태라, 무한 광대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마치 마하반야처럼요.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야 해요. 사이버 법당, 마하버스 법당을 만듭시다."

보례진언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재삼보전 일일무수례
시공간에 두루 계신 불법승 삼보께 제가 이제 한량없는 몸이 되어
삼보님 한 분 한 분께 절을 올립니다.

한량없는 부처님께 절을 하려니 이내 몸이 그냥 천백억화신이다. 방장스님께서는 초학자初學者인 우리에게 사이버 세계가 화엄세계와 다르지 않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젊은 스님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서 불교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당부하셨다.

불교문화의 아이콘 '빨간목탁'

'빨간목탁'의 주인공,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스님은 굽고 색칠하는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며 하나하나 스스로 터득하는 열정으로 1년 7개월 동안 끊임없이 시도한 끝에 '빨간목탁'을 만들었다. 직접 수공예로 목탁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목탁 채를 만드는 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5년 전에 도자기를 잠시 배운 인연과 신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고 싶다는 스님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아기자기하고 조그마한 목탁에서 나오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간목탁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불교 굿즈goods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화엄사 연기암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연기암烟起庵은 화엄사 원찰로서, 백제 성왕 때 인도의 고승 연기 조사가 창건했다. 절에 들어서자 13미터 높이의 문수보살상이 우릴 향해 반갑게 웃으신다. 연기암 주지 만해 스님의 환대로 차담을 나누었다.

"평생 나의 화두, 나만의 부처님 공부, 내 기도를 꽉 잡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열심히, 금강석金剛石처럼 부서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붙들어야지. 마음이 변할 때마다 다시 다잡고 간절한 신심으로 요동 없이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는 일념으로 말이야.

요즘 스님들 노후를 걱정한다는데 돈에 집착해서 그렇지. 절에 가서 마당 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절에서 먹고 자면 노후가 해결되는데 거기에 돈을 달라고 하니깐 문제가 되는 거지. 아직도 뉴스나 신문에 스님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 중이 미래에 아플 걸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

고생했던 출가생활과 불사佛事 때의 이야기를 지금은 웃으며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다. 힘들 때는 쉬어가야 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각황전과 사사자삼층석탑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보 각황전(화엄사)에는 본디 삼층의 장륙전이 서 있었고 그 사방 벽에 80권 화엄경을 돌판에 새긴 화엄석경이 있었다. 원효 대사가 화엄사 해화당에서 화랑도들에게 화엄사상을 가르쳐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면, 의상 대사는 장륙전의 2층 벽 일곱 칸에 화엄경을 돌에 새겨 조성했다. 또한 황금 장륙불상을 모신 장륙전(지금의 각황전)을 세우고 석등을 조성한 것도 의상 대사였다. 그러나 장륙전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1만여 점의 조각들만 남아 절에서 보관해왔다. 정유재란 이후 조선 숙종 28년(1702) 2층의 장륙전 건물을 다시 지었고, 숙종이 '각황보전'이라는 현판을 내려서 각황전으로 불리고 있다.

각황전 옆 108계단을 오르면 국보인 사사자삼층석탑이 있다.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자장 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셔와 사사자삼층사리석탑과 공양탑을 세웠다. 효대의 사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가운데서 합장하고 서 있는 비구니스님 상像이 연기 조사의 어머니이고 바로 앞 석등의 탑을 향해 꿇어앉아 있는 스님 상은 연기 조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석등을 이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 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한 것이다.

상무주암 현기 스님

화엄사 구석구석 국보와 보물이 가득한 곳에서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우리는 서둘러 현기 스님을 친견하러 마지막 여행지인 상무주암으로 향했다. 가파르고 험한 지리산 산길을 헐떡거리며 오른 지 40분쯤 되었을까? 현기 스님이 계신 산꼭대기 상무주암에 이르렀다. 스님께서 마루 중간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현기 스님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난 40년간 지리산에서 반야봉을 바라보며 화두를 들고 계신다. 적적한 밤에는 달과 별을 벗 삼고 낮에는 밭을 일구며 매일 새벽 2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새벽 예불을 올린다.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거쳐 간 지리산 상무주암. 창건주인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경치 좋고 조용하기가 천하에 제일인 이곳에서 3년간 거주하셨다.

지눌 스님은 대혜 스님의 '서장'을 읽고 "선이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사량분별하는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요한 곳이든 시끄러운 곳이든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선하지 않아야만 홀연히 눈이 열리어서 이것이 집안의 일임을 알 수 있느니라."는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보조 스님의 가슴에 돌덩이 같은 원수와 결별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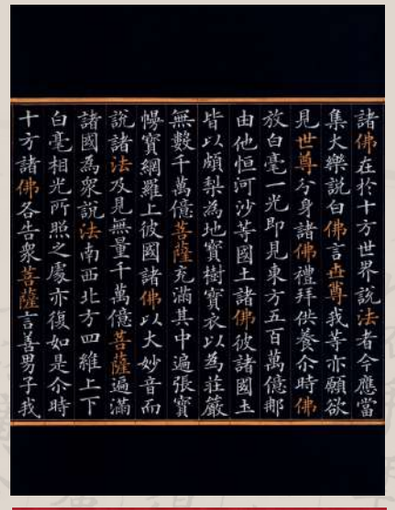
어느새 여행의 마지막 밤, 4년간의 강원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우리의 아쉬운 마음을 아는 듯 달빛과 별빛이 창문을 환히 비추면서 우리와 그 시간을 함께했다. 泰寧

山居 산에 살면서

山河雖有主　산하는 주인이 없다 하지만
風月本無爭　바람과 달은 본래 다툼이 없어라.
又得春消息　봄소식을 얻고 보니
梅花滿樹生　매화가 나무 가득히 피어났구나.

- 청허당집 -

불심을 가슴에 새기는 수행 사경寫經



사경 (다길 김경호 사경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몸소 체득하는 수행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사경은 불교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옮겨 쓰는 서사書寫로서, 수행인 동시에 전통예술에도 속한다. 현재의 사경 수행은 다양한 기도법과 수행 방편 가운데 하나이지만, 과거에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일이 경전을 베껴 책을 만들어 퍼뜨려야 했는데, 종려나무의 껍질인 패엽에 범어를 기록한 '패엽경전'을 불교 사경의 시초로 보고 있다.

불교사史에서 사경이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후, 인도 서북부에서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 재가 신도의 신행을 중시하고 불경을 널리 보급하면서부터다.

한국불교 최초의 사경은 372년(소수림왕 2)에 전진의 왕 부견符堅이 고구려에 순도順道를 파견하여 불상과 함께 불경을 보내왔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볼 수 있듯, 그 시기에 전해왔을 것으로 짐작한다. 현재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사경은 754년 통일신라 때 연기 법사가 부모님을 위해 발원하며 백지에 먹으로 쓴 『대방광불화엄경』(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이 경전은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물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유물에는 당시 제작과정이 남아 있는데, 사경을 할 때 몸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패엽경 (밀양정사 성보박물관)

"사경을 하는 법은 닥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 생장生長시키고 닥나무가 다 자란 연후에는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자, 연마하는 자, 종이를 만드는 자, 사경을 하는 자, 표지와 변상도變相圖를 그리는 자, 표구를 하는 자, 심부름을 하는 자 등 모든 이들이 보살계를 받고 재식齋食(음식을 청결히 가려 먹음)을 해야 한다. 만약 위의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았거나 누워 잤거나 음식을 먹었거나 했을 때는 향수로 목욕을 한 연후에 사경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사성기」 중에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리움미술관)

한국불교에서 사경은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고구려 충렬왕(1236~1308)때는 당시 중국 원나라에 사경승 수백 명을 파견해서 '금은대장경'을 제작해줄 만큼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억불숭유 정책의 영향으로 사경 기술이 쇠퇴하면서 사경은 왕실 일부와 사찰 등에서만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현재 오랜 전통의 사경을 복원하고 1mm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길多吉 김경호 사경장은 40년 넘게 사경에 매진함으로써 지난 2022년 사경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다. 그는 사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극한 정성과 신심의 결정체이며, 전법의 수단이자 구도의 과정이다.

"사경은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넘어서서 부처님의 법신사리法身舍利를 조성하는 행위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부동의 서원과 믿음이 깃든 정성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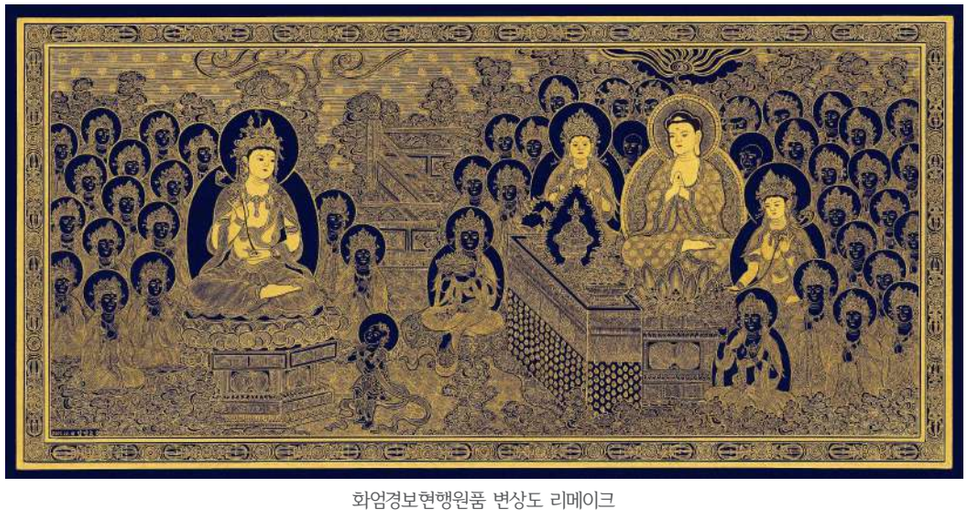
통일신라부터 고려 말까지 찬란했던 한국불교의 사경 역사에 특히 14세기부터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이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법화경은 '대승 경전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수지공덕 해설서사(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 주고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의 공덕과 영험이 매우 뛰어난 경으로 전해온다. 『법화경』 외에도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에서 사경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보현보살이여!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수행하고 익히며 베껴 쓰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직접 이 경전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니라.
또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셈이 되며,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더욱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옷자락으로 몸소 감싸 주시는 격이 되느니라."

– 『묘법연화경』 「제28 보현보살권발품」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역시 항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역시 항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고 하자. 이와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 동안 보시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고 믿는 마음으로 거스리지 않으면, 이 복덕이 앞서 말한 사람의 복덕보다 나으니라. 하물며 이 경을 사경하고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랴."

– 『금강반야바라밀경』



화엄경보현행원품 변상도 리메이크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한 게송만이라도 사경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라도 즉시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아주 작은 악업 까지도 모두 소멸될 것이다.

– 『대방광불화엄경』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손가락으로 허공에 사경을 하니 그곳은 비가 내려도 옷이 젖지 않았다.
한 글자를 쓰자 인간계에 태어나고, 종이를 사자마자 이미 천상에 태어났다."

조금 불가사의한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경을 해본 이들은 사경의 공덕과 관련된 많은 영험담이 그저 옛날이야기만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법화행자들이 정성껏 사경을 해서 탑에 봉안하고, 세계 평화와 국가 안녕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발원하고 있다.

사경은 경전 유포나 복장물 조성을 위한 불사 차원의 의미를 뛰어넘어 그 자체가 마음을 맑히는 기도와 수행, 즉 하나의 어엿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눈으로 보고, 코로 호흡을 가다듬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는 육근六根을 모두 이용하는 일명 '토탈(total) 수행법'인 것이다.

법보法寶인 경전은 불자들의 귀의대상이자 살아계신 부처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문자, 진언, 불명호 등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이자 중생의 본성이며, 불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불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부처님을 모시듯 한 글자 쓰고 삼배를 올리는 정성을 기울인 것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요히 하고 행하는 사경은 번뇌와 미혹을 여의고 청정한 본래면목과 하나 되는 수행의 과정이다.

사경의 정신은 부처님의 금구金口와 같은 가르침을 바르게 수지하고 집중하며 더불어 후세의 중생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인고의 시간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과거 스님들의 희생과 노고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을 할 때 그 호법護法의 정신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절히 새겨 더욱 수행정진하기를 바래본다.

화엄경약찬게 (동진보살)

* 삼국사기 권제18, 고구려본기 제6, 소수림왕條
* 자료출처: 다길 김경호 사경장 작품

『우바새계경』「제1 집회품」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림祇樹林 아나빈지阿那邠地精舍정사에서 머무실 때, 장자의 아들 선생善生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육사외도들은 '여섯 방향에 예경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설하며 중생을 가르칩니다. 불법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육방(여섯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선남자여, 나의 가르침 가운데에도 역시 여섯 방향이 있으니 이른바 육바라밀六波羅密이다.
동방은 보시布施, 남방은 지계持戒, 서방은 인욕忍辱, 북방은 정진精進, 하방은 선정禪定, 상방은 지혜智慧를 뜻하니 이 여섯 방향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이 여섯 방향은 오직 보살菩薩만이 공양할 수 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합니까?"

"선남자여, 보리를 얻을 수 있어서 보살이라 하며 보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느니라. 또한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 보리심을 내고 큰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며 선업을 행하고자 하는 인연으로 보리심을 내는 것은 보살의 성품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의 두 가지가 있으니 퇴전退轉과 불퇴전不退轉이니라. 불퇴전에는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출가보살은 팔중八重을 받들어 지켜서 청정함을 구족하므로 불퇴전이라 하고, 재가자는 육중六重을 받들어 지켜서 청정함을 구족하므로 역시 불퇴전이라 하느니라.
출가자가 보리심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재가자가 보리심을 내는 것은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하나니, 재가자는 많은 악한 인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재가자가 보리심을 발할 때는 사천왕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의 모든 천신들이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素寧

행복한 불제자

일법행 · 마야회 재무

2014년 늦여름이었다. 북한군도 벌벌 떤다는 중학교 2학년 딸의 사춘기 덕분에 너무 힘이 들었던 나는 마음 둘 곳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게 내 발로 봉녕사를 찾아왔다.

요즘 봉녕사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 날이 가끔 떠오르곤 한다. 장엄한 금당金堂의 부처님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여법한 스님들의 자태 그리고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법도에 맞게 척척 움직이는 신도님들의 모습까지…….

내가 봉녕사 도량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낯설지만 새로운 설렘과 동경의 대상이다. 이 느낌들이 하나의 강렬한 풍경이 되어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부처님을 떠올리며 봉녕사를 찾아온 내 자신이 그저 신통방통하기만 하다.

절에서 배우는 것들은 내가 그간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하지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듯, 나는 봉녕사 도량에서 어엿한 신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봉녕사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법회, 봉사와 울력, 법문과 경전 강의, 사찰 답사와 새신도 안내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서서히 행복한 불자가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에서 예전과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봉녕사 도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꽃이 피고 품이 다른 나무가 아름드리 숲을 이룬다. 그 아름다운 도량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하는 나와 모든 불자님들, 그 귀한 인연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불교대학에서 만난 법우님들과 수능 기도를 함께한 도반님들, 공덕활동에 동참한 봉사자분들, 심우회 법우님들 그리고 2023년의 마야회와 회향원 도반님들, 모든 분들이 불보살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연과 법연 덕분에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신행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무엇보다 봉녕사가 나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내 마음 둘 곳이 된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가는 행복이다.
수행자를 만나면 인내와 겸양으로 공손히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가는 행복이다.

–『행복경』

나는 봉녕사 도량에서, 부처님의 자비스런 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으뜸가는 행복한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것이다. 秉寧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혜후 · 4학년

능엄경의 핵심사상인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은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소리를 들을 때 외부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 안의 소리와 상응相應하면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섭수攝受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자리(불성佛性)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종二種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착란錯亂(뒤섞여서 어수선함)하게 닦고 익히는 탓이다. 이종은 첫째, 중생이 반연攀緣하는 마음을 자기의 심성心性으로 삼는 것이요. 둘째, 불성이 원래 밝으니 능히 모든 연緣을 내었으나 도리어 그 연으로 유실遺失된 것이다.

성불成佛은 보리菩提와 열반涅槃을 증득하는 것인데 본래부터 청정한 것을 말한다. 식識이란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인데 가장 정미整美로운 식이 바로 불성자리다. 부처님이나 일체중생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불성자리, 본래 성품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 하며 원성실성을 의지해서 생겨난 염정제법染淨諸法은 다 의타기성依他起性이다. 식심識心에서 일어난 염정제법을 보고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변계徧計라고 한다. 의타기성·변계소집성은 다 허망한 것이니 멀리 여의고, 원성실성으로 돌아가서 무생법인得無生忍을 얻는 것이 제일이다.

"그대(아난)는 어찌 듣는 성품은 듣지 않는가?
대중이여, 아난이여!
여러분의 전도몽상顚倒夢想으로 듣는 기관을 돌이키십시오.
듣는 자성을 돌이켜 들으면 그 자성이 무상도無上道를 이루니
그 원통圓通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을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음에 있다고 하는 반문문자성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니 내 마음이 밝아진다. 하나의 근根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육근六根이 모두 해탈하리라. 素寧

극락세계와 천상세계

연지 · 3학년

『무량수경』 수업은 각성覺醒의 시간이었다. 천상과 극락을 구분 못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교수스님 말씀에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아! 그렇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다. 깨닫기 전의 나는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무아미타불" 염불법문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무량수경』을 배우고 나서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상세계는 중생이 복을 많이 지으면 태어나는 곳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욕망의 세상이고, 복이 다하면 악처에 떨어져 또다시 윤회하는 불안정한 세상이다.

반면, 극락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난 세상으로 '중생을 성불시키는 학교'라 할 수 있다.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 세 분의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극락세계의 수많은 성인 그리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고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인 것이다.

『무량수경』을 배우기 전에는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고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했다.

"자기 마음이 정토淨土인데 일부러 정토에 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인데 따로 아미타불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서산 대사(1520~1604)는 "저 부처님은 탐내고 성내는 일이 없는데, 너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느냐?"라고 경책하셨다. 입으로 "내 마음이 부처네"라고 떠들기는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저 부처님은 지옥을 연화세계로 바꾸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고 하는데 과연 나도 그러한가?

깨달음을 얻어 사바세계의 중생을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극락세계는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배우고 나니 전도된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무량수경』의 핵심은 믿음과 발원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발원과 믿음은 지혜의 행위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실천의 행위다.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발원에 달려 있다.

저 사미니 연지도 성불학교 교장선생님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여
이 세상 다하는 날이 오면, 기쁘게 집착 없이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素寧

불법 바다에 몸을 담그고

선본 · 2학년

무릇, 인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 그 자체일 것이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달리 불교가 지향할 만한 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내게 있어 인생이란 바로 지금의 일이다. 내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건 진리다. 그때가 되어도 후회가 없도록 지금을 충실히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결의決意이며 이것은 곧 '결의바라밀'이 될 것이다. 정명 스님이 번역한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책의 원제목은 『The perfections leading to enlightenment』로, 원저자는 태국 명상수행가인 수진 보리하른와나켓이라는 여성이다.

보살은 모든 십바라밀을 닦았다. 그는 바른 행위를 행함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다. 이것이 결의바라밀(adhitthāna)이다. 결의바라밀은 지혜를 닦아 오염을 제거하겠다는 굳은 결심이다. 비록 먼 길을 가야하고 목표까지는 끝도 없는 세월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행한다면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 깨어 있는 모든 순간이 바른 행위를 하는 순간이며, 이것의 연속이 곧 삼매라고 생각한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듣고 석남사로 출가하여 강원에 오기까지, 나는 많은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한순간도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었다. 강원 생활은 그런 나를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었다. 바꾸어가는 그 시간은 다소 괴로웠지만 그만큼 내려놓아진 나는 깨어 있는 현재를 살고 있다. 늘 생각으로만 살던 내가 손과 발을 쓰게 되었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면서 출가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인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인생이라면, 출가자로서 남은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해본다. 素寧

4박 5일간의 대적광전 병법 소임

능인 · 2학년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셋째 철이 지나가고 1학년이 4박 5일 동안 도량을 지키는 방학이 다가왔다. 나는 대적광전 노전이 방학 동안의 내 소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노전이 아닌 병법 소임이라는 걸 알고는 그만 눈앞이 노래졌다. 병법은 의식의 모든 염불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노전은 해본 적이 있어서 부담이 덜 되었지만, 병법 소임은 보고 듣기만 했을 뿐이어서 막막하기만 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나에게는 4년과 같이 느껴졌다.

첫날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다. 떨면서 염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사시예불이 끝나고 있었다. 막상 진행할 때는 모르지만, 끝이 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내가 놓친 부분들이다. 빼먹었거나 나도 모르게 간추려서 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4박 5일 동안 제대로 공부가 되려고 그랬는지 49재를 포함해서 재사도 알차게 있었다. 처음에는 요령도 염불도 서툰지라 염불 소리에 집착했다. 그러다 보니 영가님과 재주분들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소리는 익숙지 않더라도 한 줄 한 줄 염불에 마음을 담아서 더 정성껏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4박 5일간 예불과 재를 지내면서 신도들께 가장 많이 느낀 마음은 죄송스러움이다. 그때의 나는 '할 줄 모른다. 처음이라 그렇다.'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정 노력은 게을리 했다. 내가 병법 소임을 본 그 4박 5일간 신도님들의 소원과 원력이 없었던 시간은 단 1분도 없었다. 그분들의 간절하고 지극한 신심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절로 보였다. 우리가 봉녕사라는 좋은 도량에서 편히 지내며 정진할 수 있는 바탕에는 시주의 은혜가 깔려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불을 올리는 것은 그 시주의 은혜를 갚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짧은 방학이었지만 신심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다. 素寧

고운 먹물을 물들이듯 좋물을 들여요

-정수-

모든 게 낯설고 긴장도 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던 날도 잠시 따뜻한 봄이 왔다. 도량 곳곳 백매화와 홍매화가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하고, 노란 산수유와 분홍 진달래까지 제각기 아름다운 빛으로 얼굴을 내민다. 덕분에 내 마음 도량에도 꽃이 피었다.

봄에는 꽃이 피듯 나의 강원 생활도 아름답게 피우리라.

-법기-

나에게 입학이란 과거의 나를 버리고 도반들과 함께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가는 제자들의 힘찬 출발이다. 앞서 이 길을 지나온 많은 선배스님들의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를 등불로 삼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것이다.

세세생생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 법기는 불법문중에 들어와 청정한 승가의 맑은 향기가 온 국토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맑은 물방울' 같은 승가의 일원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세영-

百尺竿頭백척간두 進一步진일보

끝이 보이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의미한다. 큰 결심으로 발심하여 출가한 지금, 나는 두려운 것이 없고 언제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노력하며 성장하길 나에게 기대한다.

-현정-

옛 어른스님들이 후학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노트에 새기며 마음에 새긴다.

생각 생각이 빠르고 빨라서 벌써 한 찰나 사이에 숨을 전한 즉
곧 이 내생이어니 어찌 이에 편안하게 헛되이 지내리오.

평소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신 은사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관리를 잘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강원에서 보낼 시간들을 주인공처럼 잘 보내야지.

-보문-

모든 것이 처음이라 새롭다. 하지만 이미 익혀온 습관들을 내려놓고 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진정 하심의 순간은 3주가 3초같이 느껴졌고, 3초 동안 3년의 일을 배운 것 같이 강렬하다. 봄의 파릇파릇한 새싹과 함께 시작된 우리 치문반을 매화꽃 같이 반겨주는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

圓覺道陽何處원각도량하처 現今生死卽是현금생사즉시

가장 이상적인 도량은 어디인가 지금 받고 있는 생사가 바로 그곳이다.

온 우주의 생명을 담은 발우공양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발우를 들고 마을로 나가 탁발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공양법이었고, 법法과 복福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부처님 입멸 후, 불교의 전변轉變은 팔만 사천 가지 법과 각 나라의 특수성과 융합한 다양한 불교문화로 발전해왔다. 그중 한국불교의 발우공양은 부처님의 정신과 한국적인 정서가 어우러진 한국불교의 전통 공양법이다.

부처님 당시는 물론 현재도 스님들이 공양함은 맛있는 것을 골라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닌 몸을 지탱하기 위한 양약良藥과 같다. 다시 말해서 수행자가 공양하는 목적은 성도成道(도업을 이룬다)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발우공양 때 행하는 게송과 작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그 안에는 감사와 정진精進, 회향迴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발우鉢盂'는 범어를 음사한 '발다라鉢多羅'의 약칭으로, '공양 받을 만 한 사람이 본인의 양에 맞게 받는 그릇(응량기應量器)'이라는 뜻이다. 인도나 남방불교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크기가 각각 다른 4개의 발우를 한 벌로 삼는 사합발우四合鉢盂를 쓴다. 담는 음식도 각각 다른, 어시발우(밥), 1분자(국), 2분자(청수), 3분자(반찬)를 차곡차곡 포개서 보관하였다가 대중이 함께 공양할 때 꺼내서 사용한다.

경전에 기록된 최초의 발우는 사천왕이 부처님께 바친 '돌발우'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7일이 되었을 때, 지나가던 상인 형제가 부처님께 미숫가루를 공양물로 바쳤다. 그때 부처님은 받을 그릇이 없어 '과거의 부처님들은 무슨 그릇으로 음식을 받으셨을까?'하고 잠시 생각했다. 이에 사천왕이 각자 사방四方으로 흩어져서 돌발우를 하나씩 가져와 바쳤고, 부처님은 그것을 하나로 합친 뒤 공양을 받았다. 이것을 '사천왕 봉발奉鉢'이라 하며 사합발우의 경전적 배경이기도 하다.

발우공양의 정신 **평등**平等 **청결**淸潔 **청빈**淸貧 **공동체**共同體 **복덕**福德

모든 대중이 차별 없이 시주자가 공양한 음식을 똑같이 나누고, 발우를 펴고(전발) 거두는(회발) 모습은 늘 깨끗하다. 반찬을 먹을 만큼 덜어서 담고, 공양하기 전 밥알(5~7알)을 헌식기에 담아 배고픈 이들에게 베푼다. 적당히 담은 음식을 모두 공양하고, 숭늉에 씻어놓은 김치로 발우를 닦아낸 다음 그 숭늉을 다 마신다. 다시 한 번 발우를 청수로 헹구고 나면 고춧가루 하나조차 남지 않은 그 물을 기갈로 고통받는 아귀에게 회향한다.

발우공양 작법을 통해 발우공양을 하는 순간의 모든 행위에 오롯이 집중하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의 공덕과 은혜를 반조反照해보자. 스님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은 자연에 순응해야 하며 생태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더불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법답게 회향하는 부처님 제자다운 한국불교만의 공양법이다. 아귀를 비롯하여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비심이기에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공양법 또한 이러하다. 매일 아침 발우공양을 하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모아 작성作聲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체중생과 온 우주 법계에 회향한다. 奉寧

원컨대 이 공양한 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쳐
나와 중생들 모두가 불도를 이루어지게 하여지이다.

雨花宮
우화궁은 지금

2023년의 봄

불기 2566(2022)년

11. 6 소임공사가 있었습니다.
8~10 자비도량참법 기도가 있었습니다.
21 선재사찰음식 연구소와 이천 향공방 답사가 있었습니다.
23 범망경 포살이 있었습니다.
27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30 세주 묘엄 명사 열반 제11주기 추모다례재가 있었습니다.

12. 1 지운 스님의 차명상 코칭 지도자 과정 특강이 있었습니다.
5 도혜 석좌교수스님의 사미니율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8 비구니·식차마나·사미니 포살이 있었습니다.
11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14 심우불교대학반(제12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8 189회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19 도혜 석좌교수스님의 사미니율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25 4학년 스님 졸업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26 다례사은회와 4학년 스님의 진감·초의 다맥 제8대 다사전수식이 있었습니다.
29 대중스님 가행정진이 있었습니다.

불기 2567(2023)년

1. 1 통알세배와 어른스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3 봉녕사 승가대학(49회), 금강율학승가대학 전문과정(21회) 및 연구과정(8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1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 24 화엄무차평등대재 및 보살수계법회 입재가 있었습니다.
27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불기 2567(2023)년

3. 2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연구과정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7 심우불교대학 기본반(제39기)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8 심우불교대학반(제13기)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2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21 범망경 포살과 봄나물 솜씨자랑이 있었습니다.
23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5 1, 2학년 스님 다례수업이 있었습니다.
30 불교박람회 견학이 있었습니다.
31 3, 4학년 스님 다례수업이 있었습니다.

4. 4~7 제31회 식차마나니수계산림이 우화궁 금강계단에서 있었습니다.
8 제31회 식차마나니수계산림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9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이 있었습니다.
10 도혜 석좌교수스님의 사미니율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11 2, 3학년 스님 다례수업이 있었습니다.
13 지운 스님의 차명상 코칭 지도자 과정 특강이 있었습니다.
14 화엄무차평등대재 및 보살수계법회 회향이 있었습니다.
20 비구니·식차마나·사미니 포살이 있었습니다.
29~30 연등운력이 있었습니다.

5. 3 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비도량참법

성도재일

다례사은회

입학식

봄나물솜씨자랑

불교박람회 관람

세주당 묘엄명사 열반 제11주기 추모다례재 ·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2022년 11월 30일 세주당 묘엄명사 열반 제11주기 추모다례재와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및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이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묘엄불교문화상은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이사장 정명 스님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소장 수경 스님이 수상했다. 이어 세주묘엄장학금은 봉녕사승가대학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등 15명의 스님들에게 수여됐다.

백천장학재단 조명하 이사장님 백일재 대중독경

승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평생 자비보살행을 실천해온 백천장학재단의 조명하 이사장님의 백일재가 봉녕사에서 진행됐다. 생전 고인은 신심 깊은 불자로서 아낌없는 승가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러한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전하고자 2022년 11월 19일 백일재에 대중스님들과 함께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독송하며 우담화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고인을 기리는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화엄무차대재 및 보살수계대법회

불기 2567년 계묘년 윤달을 맞아 불자로서 참마음을 깨닫는 수행의 과정과 무량한 공덕을 닦는 화엄무차평등대재 및 보살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입재(2월 24일)는 동화사 승가대학원장 법해 용학 스님을 법사로, 이어 초재부터 6재까지는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문을 청했다. 4월 14일은 50일간의 「보현행원품」 독송기도를 회향하며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무관 대종사,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율사, 조계종 단일계단 존증아사리 원조경암 율사 삼사三師를 모시고 보살수계식을 거행했다.

용왕재 방생기도 법회

2023년 입춘을 맞이하여 2월 7일 화요일 용왕재 방생기도 법회를 위해 단양 충주호로 향했다. 봉녕사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함께 떠난 이번 기도 법회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외부에서 진행됐다. 방생기도 후 찾은 단양 방곡사는 소백산 자락의 지장도량으로 회주 묘허 스님이 1998년에 창건했다. 이날 회주스님께서는 '방생과 보살 수계 공덕'에 대한 법문으로 대중들의 신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법회 및 기도 안내

초하루기도 (매월 음력 1일)
대적광전에서 신중기도 후 주지스님의 생활교리법문이 있습니다.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광명진언 독송 및 영가 천도법회가 대적광전에서 있습니다.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대적광전에서 관음기도 후 석좌교수스님과 율주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104위位 신중기도 (매월 음력 3일)
주지스님의 특별 신중기도가 대적광전(오후 2시)에서 있습니다.

심우불교대학 기본반
매년 3월과 9월에 개강하며 3개월 과정입니다.

심우불교대학반
(1년 2학기 과정)
조계종단의 인가를 받은 신도 전문 교육대학으로 매년 3월 개강합니다.

심우불교대학 경전반
(1년 2학기 과정)
2023년도 수업은 휴강입니다.

차문화연구원 행다례명상반
(1년 2학기 과정)
율주스님의 강의로 청신사 · 청신녀 반이 있습니다.

부설거사회 법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4시 정기모임과 넷째 일요일 오후 2시 일요법회에 동참합니다.

우담화합창단
매주 수요일 저녁7시 금비라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아미타회 법회
병문안 기도와 시다림 등을 하고 있으며, 매월 지장재일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불자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7시 일우실에서 법회가 있습니다.

봉녕사 일요법회

- 첫째주 : 대비주기도(주지 진상 스님) 대적광전, 오후 7시
- 둘째주 : 능엄경 강의(율주 적연 스님)
- 셋째주 : 108배와 명상(율감 선정 스님)
- 넷째주 : 천수경 강의(석좌교수 도혜 스님)

둘째, 셋째, 넷째주 : 육화당, 오후 2시

천진불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

◉ **어린이 법회**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2시, 일우실
◉ **청소년 법회** : 기간별 특별법회로 진행

※ 어린이 법회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독 및 후원 안내

봉녕사 편집실에서는 봉녕지에 불법의 향기를 담아 두루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　　원 : 신한 140-009-39158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구독안내 : Tel. 031) 254-3371　Fax. 031) 258-0715
· 이 메 일 : sangwa258@hanmail.net
※ 봉녕지를 받으시는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녕』지 법공양 발원문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니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화엄경』「보현행원품」

『봉녕』지 는 2003년에 개간한 이래 전국에 배포되며 봉녕사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0년 봄호부터 『봉녕』지 에 '법공양 발원문' 을 올리는 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법공양에 동참하여 『봉녕』 지도 후원하고 원하는 바도 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 참 금 : 삼만원 이상

발 원 문 : 글자 40자 내외(발원 내용은 자유)

*가족과 함께 발원문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접수 · 문의 : 봉녕사 종무소(031-256-4127)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발원문 동참자

정보 스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담현 스님
일체중생이 바른 깨달음으로 괴로움을 소멸하고 안온한 열반을 성취하여 모두를 이롭게 하길 발원합니다.

봉녕사 아미타회
일체중생이 행복하고 성불하길 발원합니다.

선광(박동규) 불자님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매일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무량각(임봉수) 불자님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매일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김종구 불자님
가족건강과 심중소원성취를 발원합니다.

강호영 불자님
불법에 귀의하옵고, 오랜 미혹에서 벗어나고 모든 관재구설 영원히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진학구 불자님
가족의 과거 악업과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일체중생이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길 발원합니다.

최서윤 불자님
일체중생 불연이 깊어지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발원합니다.

최서진 불자님
일체중생 불연이 깊어지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발원합니다.

박성민 불자님
속득인연상봉, 결혼성취, 심중소원성취를 발원합니다.

성도심 불자님
일체중생의 행복과 가족건강과 심중소원성취를 발원합니다.

한량없는 발원을 담아 동참해주신 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대지 스님 · 남용순 불자님 · 성창훈 불자님 · 정희순 불자님 · 블리스헤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出家)

출가는 위대한 삶의 혁명입니다.
내려놓고 바라보면 보이는 이 길은 자유의 길이며 평화의 길입니다.
삶 하나하나가 그대로 자유와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13세부터 50세 미만의 독신으로 대중생활이 가능한 자
※ 만 51세부터는 은퇴 출가자의 기준에 따라 출가할 수 있습니다.

출가 절차 및 이후 생활

1) 행자 등록 : 주지스님 면담 후 출가 가능 여부 확인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행자 등록
2) 기본 교육 과정
- 입산 본사 및 거주 사찰에서 일상생활과 기초 상식에 대한 교육 진행(염불, 초발심자경문, 사미니율의 등)
- 행자생활 3개월 이상 수료 시, 입문교육 및 심화교육 참석
- 행자생활 6개월 이상 수료 시, 수계교육 참석
3) 수계교육을 마무리하고 5급 시험에 합격할 경우, 사미니 자격 수여

※ 소년 출가 및 청년 출가자의 특별한 혜택(만 30세 이하)
-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우선 선발하며, 종단에서 장학금 지원
- 종립대학(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문의 및 안내 : 봉녕사 종무소 031)256-4127